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

이 병 덕

【국문요약】 정합성 이론이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절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가 진리개연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개연적인지 분명치 않다. 이것이 정합성 이론이 직면하는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이다. 필자는 2017년 논문에서 셸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리의 축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석기용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에서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제안이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석 교수의 비판이 왜 옳지 않은지를 밝힘으로써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한다. 특히 그의 비판이 어떤 믿음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힌다.

【주요어】 셸라시언 정합성 이론, 진리개연성 문제, 상호주관성, 객관성, 석기용

투고일: 2019. 1. 15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19. 2. 17 게재확정일: 2019. 2. 13

*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아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1. 들어가는 말

인식 정당화는 목적 의존적 개념이다. 어떤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목적과 관련하여 그 믿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합성 이론이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절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가 우리의 인식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의 인식목적은 참을 추구하고 오류를 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목적이 옳다면 우리가 의도하는 인식 정당화는 진리개연적(truth-conducive)인 것이어야 한다. 봉주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절한 인식이론이 해결해야 하는 핵심과제는 그 이론이 인식 정당화에 관해 제시하는 설명과 진리추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가 진리개연적이라는 것, 정당화되는 믿음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참인 믿음들을 갖게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BonJour 1985, pp. 108-109)

그러나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개연적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정합성 이론은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 개연적인지에 관해 해명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정합성 이론의 가장 큰 난제이다.

그런데 진리개연성 문제는 정합성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정들에 의존한다. 하나는 동등하게 정합적인 상이한 믿음체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합성 이론에 대한 복수체계 반론은 이 가정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리가 정합성 이

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의 외적인 특성(external characteristic)이라는 것이다. 정합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이 여전히 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합론의 진리개연성 문제와 셀라시언 설명적 정합성 이론”(Lee 2017)에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리의 축소주의(the deflationary conception of truth)를 결합함으로써 진리개연성 문제를 야기하는 두 가정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합성 이론이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석기용 교수는 그의 2018년 논문 “사회실천적 정당화와 진리개연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필자의 견해를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자의 제안은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상호주관성과 객관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필자의 해결책은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견해와 사뭇 다르다. 따라서 석기용이 필자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오해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한 일이다. 또한 그와 같은 오해가 빚어진 데는 필자의 설명이 충분히 명료하지 못한 탓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석기용의 비판이 왜 옳지 않은지를 밝힘으로써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료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그의 비판이 어떤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둔 것임을 밝힌다. 표면적으로 이와 같은 가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정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도 철학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다.

2.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객관적 정당화

먼저 필자가 옹호하는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식론적 논의를 하려면 어떤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최소한 원리상) 가능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을 부정하면 어떤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인식론적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어떤 것을 (인식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최소한 원리상) 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론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추정(minimum presumption)이다.

둘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각판단과 객관적 사실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의 개념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칸트(Kant 1996)에 의하면 어떤 것을 옹호하기 위한 (또는 비판하기 위한) 규범들, 기준들, 또는 규칙들은 우리의 개념체계에 의존한다. 이런 이유에서 모든 정당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개념체계를 토대로 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는 현재의 개념체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목적 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의 개념체계를 내부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셀라스(Sellars 1963a, b)에 의하면 우리의 인식목적 은 최고의 설명적 정합성(a maximum of explanatory coherence)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의 개념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합성은 무엇인가? 레러(Lehrer 2000)는 정합성을 경쟁주장들을 물리침(beating all competitors) 또는 비판들에 답함(answering all objections)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어떤 믿음체계를 토대로 p에 대한 모든 비판들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 p는 그 믿음체계와 정합적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

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해 온 상호주관적 개념이다. 이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개인도 혼자서 세계의 모든 측면들을 파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각자가 혼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인식적 노력은 협동을 요구한다. 즉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신(神)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믿음들은 오류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어느 것이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리의 생존과 복지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식목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적절한 증거 또는 근거에 의해 옹호되는 명제들을 믿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사회실천을 해왔다. 즉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사회실천을 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정당화 개념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사회실천을 배경으로 발전되어 온 상호주관적 개념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당화 개념을 이와 같은 상호주관적 정당화 모델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합성에 관한 레어의 착상을 정당화의 상호주관적 모델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p 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비판들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 p 는 정당화된다.

그리고 정당화의 사회실천은 추정과 도전의 정당화 구조(the default-and-challenge structure of justification)를 요구한다.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어떤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식론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추정이다. 그런데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어떤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정과 도전의 정당화 구조가 요구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화의 무한

퇴행은 불가능하다. 둘째, 진정한 의심은 동시에 의심되지 않는 다른 믿음들의 배경 하에서만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어떤 것을 옹호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추정적 정당화(default justification)의 위상을 가지는 주장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입증의 부담이 도전자에게 전가된다.

이제 위에서 간략히 소개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이 어떻게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제1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합성 이론이 정당화 이론으로서 적절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의해 이해된 정당화와 우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합성 이론은 정합적 정당화가 어떻게 진리 개연적인지에 관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만드는 두 가지 가정들이 있다. 첫 번째 가정은 동등하게 정합적인 상이한 믿음체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정은 진리가 정합성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의 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개연성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정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합성 이론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는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 셀라시언 설명적 정합성 이론과 진리의 축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위의 두 가정들을 부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리의 축소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 (1) 시저는 살해되었다. (Caesar was murdered.)
- (2) 시저가 살해되었다는 것은 참이다. (It is true that Caesar was murdered)

(1)과 (2)가 주장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진리의 축소주의에 의하면 ‘참이다’라는 술어는 실질적 내용을 표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참은 실질적 개념이 아니다. 대신 우리는 ‘참이다’를 이 술어가 수행하는 논리적 또는 표현적 역할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참이 실질적 개념이 아니라면, 객관적 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컨대 우리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를 객관적 참으로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에서 이 명제를 객관적 참으로 여기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진리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X’는 참이다 \leftrightarrow X. (‘X’ is true if and only if X.)

위의 쌍조건문에 의해서, 우리는 (3)의 오른쪽 문장 ‘X’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 때, 마찬가지로 (3)의 왼쪽 문장 ‘X’는 참이다’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달리 말해 ‘X’가 정당화될 때 ‘X’는 참이다’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는 명제 p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떤 조건 하에서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되는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화에 관한 셀라시언 사회실천 모델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p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비판들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 p는 정당화된다. 이제 p가 적절한 증거에 의해 옹호되는 명제이고, 따라서 우리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참인 것으로 여긴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p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은 p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됨을 보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객관적 정당화는 상호주관적 정당화보다 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사실은 객관적 정당화가 어떤 태도와도 독립적임을 함축하지 않는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정당화되는 또는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명제는 개념들로 구성된다.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는 지구의 개념과 둥글의 개념에 의해 구성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개념들이 우리의 개념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들의 옳음 조건들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의미론적 규칙들에 의존한다. 예컨대 우리는 지구의 개념을 오직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에만 적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명제는 우리의 관점과 독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p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브랜덤(Brandom 1994, pp. 593-608)에 의하면, 상호주관적 참으로 여겨지는 믿음이 실제로 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상호주관성과 객관성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제안에 따라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정당화의 평가는 접근 가능한 증거에 상대적이다. 그리고 반대증거는 나중에 알려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접근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 정당화됨의 (인식적) 위상을 갖고 있는 믿음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반대증거에 의해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p는 t_1 시점에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으로 여겨졌으나, t_2 시점에 획득된 반대증거에 의해 논박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우리의 믿음 p가 t_1 시점에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졌을 뿐,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being merely taken to be justified*)과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being really or objectively justified*)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우리가 상호주관적 정당화보다 강한 객관적 정당화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긴 명제가 나중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믿음이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은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이성적인 존재자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적 추구의 규제적 이상(regulative ideal)이다. 예컨대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 어떤 초지성적(super-intelligent) 존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반대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 반대증거를 제시한 존재자가 인간들과 다른 초지성적 존재자라는 사실은 그 반대증거를 무시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성적 존재자도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은 통시적인 노력이다. 예컨대 현재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도 나중에 결정적인 반대증거가 제시되면 포기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미래 세대의 이성적 존재자들도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제 어떤 믿음이 현재 접근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하자. 또한 나중에 이 믿음을 논파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다고 하자. 이런 경우 이 믿음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다. 예컨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우리의 믿음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현재 접근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 정당화됨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나중에 논파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믿음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 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진리개연성 문제를 난제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등하게 정합적인 상이한 믿음체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지금까지 소개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을 진리의 축소주의를 결합함으로써 부정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사실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모든 정당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사회실천 속에서 답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당화의 사회실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어떤 지성적인 존재자도 원리상 영원히 지속되는 정당화의 사회실천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셋째, 내적으로 정합적인, 그러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복수의 믿음체계들이 주관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믿음들은,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통시적 사회실천 속에서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논점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믿음을 논박하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는 경우, 우리는 이성적 인식주체로서 그 믿음을 포기해야 한다. 이제 p 가 우리의 개념체계 속에서 실제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또한 동시에 $\sim p$ 가 어떤 이질적인 개념체계에서 실제로 정당화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예컨대 p 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명제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명제가 우리의 개념체계 속에서 실제로 정당화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가정상 p 는 현재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 위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조건 하에서 $\sim p$ 가 어떤 이질적 개념체계에서 또한 실제로 정당화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sim p$ 가 그렇게 정당화된다면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어떤 증거 또는 이유 E 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우리가 E 를 그러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면, p 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정당화된다는 가정과 충돌한다. 왜냐하면 E 가 $\sim p$ 를 실제로 정당화해주는 증거라면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p 를 정당화해준다고 간주했던 기존의 증거를 무력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가 E 를 그러한 증거로 해석할 수 없다면, E 가 $\sim p$ 를 정당화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어떤 것이 어떤 명제를 정당화해주는 증거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적어도 원리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리상 증거 또는 이유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적 논의에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데이비드슨(Davidson 1984)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개념체계의 진정한 대안(genuine alternative)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체계는 우리의 개념체계의 진정한 대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우리의 개념체계를 대체할만한 진정한 대안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적으로 정합적인, 그러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복수의 개념체계들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번에는 p 가 정당화에 관한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현재 정당화됨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만, 누락된 반대증거가 있어서 실제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현재 우리의 믿음 p 가 정당화됨의 위상을 지니는 이유는 p 를 정당화해주는 어떤 증거 E_1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자. 또한 동시에 $\sim p$ 가 어떤 이질적인 개념체계 속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이질적인 개념체계에서 $\sim p$ 를 정당화해주는 우리가 누락하고 있는 다른 증거 E_2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진리가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의 외적인 특성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이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개연성 문제는 정합성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정들에 의존한다. 하나는 동등하게 정합적인 상이한 믿음체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리가 정합성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의 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이유에 따라 동등하게 정합적인, 진정한 대안체계는 (상호주관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현재 우리의 개념체계가 보다 나은 설명적 정합성을 갖도록 개선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동등하게 정합적인 상이한 믿음체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복수체계 반론은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큰 문제가 안 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은 실질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화의 규범들과 독립적인, 실질적인 참의 규범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p 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 p 는 참이다’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런 이유에서 참은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의 외적인 특성이 아니다. 요컨대 필자가 옹호하는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은 진리개연성 문제를 야기하는 두 가정들을 무

는 다음과 같다. 위 경우 우리의 믿음 p 는 실제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아니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우리의 사회실천 속에서 이성적인 존재자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론적 추구의 규제적 이상이다. 따라서 우리가 누락하고 있는 반대증거 E_2 가 적어도 원리상 우리에게 언젠가는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 p 는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게 된다. 반면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p 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현재 정당화됨의 위상을 지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나중에 논박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는 경우에 이 믿음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된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믿음 p 가 갖는 정당화됨의 위상은 이질적인 개념체계에 존재하는 E_2 와 같은 반대 증거에 의해 논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정당화되는 믿음들과 객관적으로 참인 믿음들의 외연은 일치한다.

력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1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정합성 이론이 적절한 정당화 이론이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와 우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은 이 조건을 잘 충족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목적은 최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p 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비판들에 답할 수 있는 경우에, 다시 말해 p 의 모든 경쟁주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경우에 p 는 정당화된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세계상의 설명적 정합성을 p 보다 더 증진시켜주는 경쟁주장이 있다면, p 는 그 경쟁주장을 물리칠 수 없다. 따라서 p 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의 세계상의 설명적 정합성을 증진시켜주는 경쟁주장이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아는 한) 없음을 함축한다. 따라서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믿음들은 보다 나은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식목적에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는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끝으로, 객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참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 (4) ‘ p ’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 (5) ‘ p 는 참이다’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 (6) ‘ p ’는 객관적으로 참이다.

(4)가 성립하면, 진리도식 (3)에 의해서 (5)도 성립한다. 그리고 ‘ p 는 참이다’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면, ‘ p 는 참이다’를 항상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또한 (5)와 (6) 사이에 유의미한 인식론적 차이

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6)을 (5)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객관적 참을 객관적 정당화로 이해할 수 있다.²⁾

3. 석기용 교수의 비판

지금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는 객관적 참을 객관적 정당화에 의해, 그리고 객관적 정당화는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쉘라시언 정합성에 의해 이해되는 정합성과 객관적 정당화(또는 객관적 참)는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석기용은 왜 필자가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가? 그에 따르면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필자는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기 위해 게티어 문제를 야기하는 단편적인 이야기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1] 갑은 부하직원 을이 평소에 최고급 스포츠카 Z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으며, 실제로 을이 운전하는 Z에 여러 번 타본 적도 있었다. 을은 상당히 성실하고 진지한

2) 그런데 이 주장은 ‘객관적 정당화’의 의미와 ‘객관적 참’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우리는 p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p는 참이다’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4)가 성립하면 (5)도 성립한다. 그러나 진리의 축소주의에 따르면 ‘참이다’는 실질적 개념을 표현하지 않는다. 반면 ‘정당화’는 실질적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는 ‘참이다’(is true)의 의미론적 분석과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진리술어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말해 ‘참이다’의 의미는 진리의 축소주의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p는 참이다’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p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이다.

사람으로 평판이 높았으며, 특히 직장 상사에 각뚫했다. Z를 갖고 있다는 을의 주장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갑은 ‘을이 Z를 갖고 있다(Q)’고 알게 되었다.

[2] 갑은 어느 날 다른 부서의 정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Q를 주장했다. Z가 매우 고가임을 알고 있던 정은 어떤 근거로 Q를 주장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갑은 그간 획득한 정보와 더불어 자기가 을이 운전하는 Z에 탔을 때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 주었다. 을의 평판을 잘 알던 정은 자신 또한 Q에 찬동하면서 기회가 되면 자기도 Q를 주장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3] Z 같은 비싼 차를 정말로 을이 소유한 것인지 의심한 정이 다른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을이 타고 다니며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Z는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장기 임대 차량임을 알아냈다. 결국 을이 Z를 타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 차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 빌린 차였다. 정은 이런 새로운 정보를 갑에게 전하였고, 갑은 숙고 끝에 자신의 지식주장을 포기하였다.

[4] 무는 우연한 기회에 을의 Z 소유 여부에 관한 배경 정보를 얻게 되었다. 실제로 을이 Z를 빌렸다는 렌터카 회사는 을의 소유이고(그럴 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다고 치자) 따라서 그가 렌트한 차로 설정해 놓은 Z 역시 을이 소유주라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을은 이런 복잡한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본인의 차라고 말한 것뿐이며 따라서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간주하기 어

럽다. 무에게 이 정보를 전해들은 갑과 정은 갑에 대한 믿음 Q의 지식 귀속이 정당하다는 점에 동의하게 되었다.

[1]부터 [4]까지의 단계들을 제시하고 석기용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에서 갑이 Q를 정당화하는 단계는 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이다. 그리고 이처럼 단지 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의 경우에는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 [2]와 [3]에서 갑과 정은 Q 및 \sim Q의 정당화와 관련된 증거들을 교환하면서 Q 및 \sim Q에 대한 그들 사이의 상호주관적 정당화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4]를 통해 갑과 정이 [3]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한 \sim Q는 무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증거에 의해서 다시 거짓으로 밝혀진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 믿음 조건과 정당화 조건이 충족되지만, 단지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4]에서 갑, 정, 무가 Q에 관하여 성취한 상호주관적 정당화도 완결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결국 Q가 참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석기용은 진리개연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실천적 정당화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은 참일 개연성이 높다. 객관적으로 정당화된 믿음은 그 믿음의 정당화 여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증거와 근거가 빠짐없이 검토된 믿음이며, 그렇게 정당화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어줄 중요한 반대증거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 [2]와 [3]에서 이루어진 정당화와 [4]에서의 정당화를 구분해줄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만약 사회실천적 정당화가 [4]에서 ... 완료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4]에서 Q의 정당화 시도와 관련된 모든 증거와 근거가 제시되었으며 그것들이 모두 상호주관적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혹시 [4]가 아직은 어떤 증거와 근거도 누락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단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기는 대체 언제가 되는 것인가? 상호주관적인 정당화가 객관적[인] 정당화로 승격되었다는 판단은 관련 증거와 근거가 사실상 모두 드러나고 난 다음에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에게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이러한 질적 전환을 가름해줄 별도의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건은 진정한 정당화에 못 미치는 주관적 정당화와 상호주관적 정당화에 비해서 진정한 정당화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정당화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있다. (석기용 2018, p. 107)

석기용의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의하면 ‘믿음 p 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 p 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p 를 믿음에 있어서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를 넘어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p 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영원히 잃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p 가 영원히 정당화됨의 위상을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믿음 p 를 나중에 논박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 증거가 실제로 없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그런데 위 비판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존한다. p 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다 강한 조건인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가정은 옳지 않다. 물론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실제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긴 명제가 나중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와 같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은 현재 접근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위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믿음을 논파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는 경우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믿음 p 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믿음 p 가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믿음 p 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과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메타지식을 가져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트럼프는 인간이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여전히 가능하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지구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외계인이었다. 트럼프는 그러한 외계인과 인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종교배의 산물이다. 따라서 트럼프가 비록 겉보기에는 인간과 구별되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가 인간중에 속하지 않는 탓에 그도 엄밀히 말해 인간중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트럼프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숨겼기 때문에 그의 진짜 정체는 드러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가능성일 뿐, 우리가 믿고 있듯이 트럼프는 실제로 인간이라고 하자. 그러면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논박하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다. 이 경우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류 가능성(fallibility)과 오류(falsity)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오류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오류가 아니다.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현재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나중에 논박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단지 정당화된다고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 시점에서 이 믿음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믿음이 실제로 정당화되는 믿음인 이유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믿음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을 나중에 논박할 수 있는, 누락된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이 믿음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요컨대 오류 가능성과 객관적 정당화는 서로 양립한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조건 하에서 ‘S는 p를 안다’라는 지식주장(knowledge claim)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해 위 논점을 강화할 수 있다. 지식에 관한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S는 p를 안다’의 필요충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i) p는 참이다.
- (ii) S는 p를 믿는다.
- (iii)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필자는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

리의 축소주의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위의 세 조건들을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과 진리에 관한 축소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먼저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이 조건은 지식의 믿음 조건이다. S가 p를 믿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S는 p를 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S는 p를 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ii)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세 번째 조건을 살펴보자. 이 조건은 지식의 정당화 조건이다.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은 정당화의 개념을 상호주관적 정당화 모델을 통해 이해한다. 따라서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예컨대 S가 E₁이란 증거를 토대로 p를 참으로 여긴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주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S 자신은 모르지만, 인식 평가자인 우리에게는 접근 가능한, E₁의 증거력을 무력화시키는 반대증거 E₂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그의 믿음 p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대증거 E₂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조건 (iii)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세 번째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p에 대한 S의 믿음이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돼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정당화는 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동적인 모델에 의해 이해돼야 한다. 따라서 어떤 믿음 p가 실제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기 위해서는, p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물론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실제로 정당화된다’ 형태의 인식적 평가는 오류 가능하다. 즉 새로운 반대증거가 제시되면 철회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당화에 관한 그와 같은 주장

이 오류 가능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와 같은 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양립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S는 p를 믿음에 있어서 실제로 정당화된다’ 형태의 인식적 평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 예컨대 현 시점에서 우리는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S의 믿음이 실제로 정당화되는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끝으로 첫 번째 조건인 지식의 진리 조건을 살펴보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리의 축소주의에 의하면 참(즉 진리)은 실질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정당화의 규범들과 독립적인, 실질적인 참의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우리가 p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면, 우리는 ‘p는 참이다’를 또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됨을 승인한다는 것은 p가 정당화됨을 승인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따라서 우리가 조건 (iii)을 승인하는 경우 우리는 조건 (i)도 승인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조건 (i)은 잉여적이다. 비록 이런 의미에서 잉여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인식 평가자로서 ‘p는 참이다’라고 말함으로써 S의 믿음에 동의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조건 (i)이 하는 역할은 인식 평가자로서 우리가 S의 믿음에 동의함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이유에 따라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 하에서 ‘S는 트럼프가 인간임을 안다’라는 지식주장을 할 수 있다. 첫째, S는 ‘트럼프는 인간이다’를 믿는다. 둘째, S는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 경우 S는 ‘트럼프는 인간이다’라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의 믿음이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당화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메타지식을 결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는 트

럼프가 인간임을 안다'라는 지식주장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우리의 지식주장도 원리상 오류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강조한 것처럼 오류 가능성과 객관적 정당화는 서로 양립한다. 따라서 S가 '트럼프는 인간이다'라고 믿음에 있어서 실제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를 논박하는 반대증거가 실제로 없으면 되는 것이지, 단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과 실제로 정당화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메타지식을 가져야 함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p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강한 조건인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어떤 시점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 믿음들 중 실제로 오류에 기반을 둔 것들은 물론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된 믿음들 중 실제로 오류에 기반을 두지 않은 것들은, 바로 그 사실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들이다. 요컨대 우리의 믿음 p가 단지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p를 알기 위해서, 믿음 p가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해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같은 논점을 석기용이 제시한 게티어 문제와 관련된 [1]부터 [4]까지의 복합적 이야기 전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우리가 [4] 단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을이 스포츠카 Z를 빌린 렌터카 회사는 을의 개인소유이고, 따라서 그가 렌트한 차로 설정해 놓은 Z 역시 을의 소유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을은 스포츠카 Z를 소유한다(Q)'는 우리의 믿음은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정당화됨의 위상을 지닌다.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예컨대 '갑은 Q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식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첫째, 갑은 Q를 믿는다. 둘째,

갑은 Q를 믿음에 있어서 정당화된다. 셋째, 우리는 Q에 대한 갑의 믿음에 동의한다. 그런데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Q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누락된 반대증거가 없는 경우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 Q가 정당화됨의 위상을 잃지 않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Q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누락된 중요한 반대증거가 실제로 있는 경우이다. 이제 첫 번째 경우가 실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갑은 Q를 안다’라는 우리의 지식주장이 누락된 반대증거에 의해 논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갑은 Q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갑이 Q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를 넘어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앞서 제2절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모든 정당화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화를 요구하고 이에 답하는 사회실천을 통해 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당화의 사회실천 속에서 어떤 명제의 정당화 여부를 평가할 때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증거(또는 이유)를 토대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렇게 평가함에 있어서 실제로 누락하고 있는 중요한 반대증거가 없으면, 우리의 평가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런 이유에서, 단지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이 첫 번째 경우라는 사실에 의해서, 다시 말해 우리가 Q의 정당화와 관련해 누락하고 있는 중요한 반대증거가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갑과 우리는 Q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인식주체가 단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과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메타지식을 가져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4. 나오는 말

지금까지의 논의가 옳다면, 우리는 객관적 참을 객관적 정당화에 의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객관적 정당화를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한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켈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의한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또는 객관적 진리)는 서로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석기용은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잘못된 것이다.

첫째, 정합성 이론이 적절한 정당화 이론이기 위해서는 그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와 우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필자는 진리의 축소주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목적은 참을 획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최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켈라시언 정합성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와 최고의 설명적 정합성을 갖는 세계상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식목적 사이에 내적인 연결이 있다. 따라서 켈라시언 정합성 이론은 이 이론에 의한 정당화와 우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는 켈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³⁾

3) 석기용은 “사회실천적 정당화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인식 정당성의 적절성 조건으로서 실재론적 진리 개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진리개연성 개념을 재고하는 데서 찾아야 함”(p. 95)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주장은 진리개연성 문제에 대한 필자의 해결책을 크게 오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필자는 진리의 축소주의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필자의 해결책은 실재론적 진리 개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진리개연성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 상호주관적 정당화와 객관적 정당화를 나눌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 진리개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석기용의 비판은, 어떤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을 둔 것이다. 우리가 상호주관성보다 강한 객관성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믿음 p 가 t_1 시점에 정당화됨의 위상을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t_2 시점에 p 를 논박하는 반대증거가 획득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우리는 ‘믿음 p 는 t_1 시점에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으로 여겨졌으나,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상호주관성보다 강한 객관성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명제의 정당화와 관련하여 실제로 누락된 반대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그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인식주체가 단지 상호주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불과한 것과 객관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메타지식을 가져야 함이 요구되지 않는다.

요컨대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은 이 이론이 제시하는 정당화와 우리의 인식목적 사이에 적절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어떤 명제를 믿음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 단지 상호주관적 정당화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 정당화의 단계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이 두 논점을 잘 이해하면, 왜 이른바 진리개연성 문제가 필자가 옹호하는 셀라시언 정합성 이론에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석기용 (2018), “사회실천적 정당화와 진리개연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28호, pp. 95-116.
- BonJour, L. (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andom, R. (1994), *Making It Explici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1984), “On the Very Idea of a Conceptual Scheme”, in his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Oxford: Clarendon Press.
- Kant, I. (1996),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in M. G. Gregor (trans. and ed.), *Practical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5-271.
- Lee, B. D. (2017), “The Truth-Conduciveness Problem of Coherentism and a Sellarsian Explanatory Coherence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25, pp. 63-79.
- Lehrer, K. (2000), *Theory of Knowledge*, 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 Sellars, W. (1963a), “The Language of Theories”, in hi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Atascadero: Ridgeview, pp. 106-126.
- Sellars, W. (1963b),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in his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Atascadero: Ridgeview, pp. 127-196.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bydlee@skku.edu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and Objective Justification

Byeongdeok Lee

A coherence theory is adequate as a theory of justification only when justification as conceived by the theory is truth-conducive. But it is not clear how coherentist justification is truth-conducive. This is the alleged truth-conduciveness problem of coherentism. In my 2017 paper, I argued that a certain version of the coherence theory, namely a Sellarsian coherence theory combined with the deflationary conception of truth, can cope with this problem. Against this claim, Kiyong Suk argues in his recent paper that my proposed solution fails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actical way of distinguishing between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and objective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my view by way of explaining why Suk's criticism is not correct. In particular, I argue that his criticism is based on a wrong assumption, namely that for one to be objectively justified in believing something, one's justification must be qualitatively transformed into the status of having objective justification from the status of having intersubjective justification.

Key Words: A Sellarsian coherence theory, the Truth-Conduciveness Problem, Intersubjectivity, Objectivity, Kiyong Suk.